

# 정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문 열었다

달하노피콤 컨퍼런스센터

카페·캡슐호텔·회의실 등 갖춰

기업체 회의·주민 모임 장소 제공

정읍시의 도시재생과 주민 소통의 거점이 될 컨퍼런스센터가 문을 열었다.

정읍시는 정읍역 인근에 도시재생거점시설 달하노피콤 컨퍼런스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읍역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달하노피콤 컨퍼런스센터는 카페, 캡슐호텔, 회의실 등을 갖췄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임승식 전북도의원을 비롯해 리본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재운·이하 리본마사협) 조합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달하노피콤’은 도시재생사업의 브랜드명으로 정읍 청년의 정읍사거리를 컨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건립됐다.

컨퍼런스센터는 KTX와 연계해 산업단지외 농공단지외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사나 모임의 장소로 제공될 예정이다.

카페와 캡슐호텔은 리본 마사협의 ‘젊은문화상



이학수 정읍시장이 등이 달하노피콤 컨퍼런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인들’ 청년들이 주축이 돼 음료와 빵을 판매하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캡슐호텔은 전북 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역 출장이나 기차 대기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읍시는 시설 운영을 위해 리본마사협과 지난 10월 위·수탁계약을 맺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리본 마사협이 전국 245개

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으뜸가는 조합으로 성장해 구도심권의 상권회복과 지역활력의 중심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며 “달하노피콤 브랜드를 통해 정읍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청년 연령 39세→45세로 상향

시의회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남원지역의 청년 연령이 기존 39세에서 45세까지로 상향된다.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주생·대산·사매·덕과·보절)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 26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상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던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현 위원장은 “청년 상향 연령을 39세나 49세로 확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나이 범위를 넓히고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원시 조례에는 청소년 9~24세, 청년 19

~39세, 신중년 50~65세, 노년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다.

40대의 경우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일부개정안으로 각종 청년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40세 이상 45세 이하 4184명의 남원시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안으로 편입될 것이라 기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현재 전국 지자체 226곳 중 청년 상향 연령이 39세인 지자체는 132곳, 45세인 지자체는 35곳, 49세인 지자체는 27곳”이라며 “상향 연령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고령화도 높은 경향이 있어 청년 연령 범위가 넓어도 청년인구의 비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34개 노선 327km 제설 관리

내년 3월15일까지 상황실 운영...이면도로에 설비 집중 비치

고창군이 겨울철 폭설과 결빙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을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군은 관내 34개 노선 327km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덩크 7대, 굴삭기 등 제설장비를 이용해 주요 도로를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읍·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제설대응을 위해 1t 트럭용 제설기와 살포기 각각 15대와 소금 등 제설제를 집중 비치했다.

또 양고살재, 방고개, 달터재, 조산저수지 등 취약구간 중점관리, 고갯길 적사장, 모래주머니, 주의표지판 설치, 염수분사장치 정비와 경찰서, 군

부대,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급경사지 등 도로 위험구간 청아아파트 입구, 남초등학교, 성산인대아파트 입구 곳곳에연선설치도 마무리했다.

제설봉사자의 트랙터 200여대에 삽날고무 등을 지원, 소재지와 마을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의 원활한 이동을 도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봉맹중 고창군 건설행정팀장은 “제설작업 구간의 수시 순찰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내 가게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산림조합, 산림환경대상 대상

# ‘고창 고인돌 유적’ 미디어아트로 생생 체험



최봉관 정읍산림조합 조합장.

정읍산림조합이 전북산림환경대상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산림환경대상은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산림환경포럼 전북본부에서 주관하며 산림청, (사)한국산림환경정보협회, 산림신문, 산림환경신문, 한국산림보안관연맹에서 후원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정읍군 서부지방산림청장, 유희태 완주군수, 박운진 전북대학교 교수등을 비롯한 총 8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최봉관 정읍산림조합 조합장은 “정읍산림조합은 산림정책의 최종적인 실행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푸르게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비영리협동조합인 산림조합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기에 성장의 혜택과 자부심을 지역사회와 조합 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나누고 명품산림조합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인돌 미디어 정원’ 전시관 내부.

고인돌박물관에 미디어정원 개관

고창군이 국내 유일의 고인돌 전문 박물관인 고창고인돌박물관 1층에 ‘고인돌 미디어 정원’이 개관했다.

2023년 미디어아트 상설체험용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들여 완성된 고인돌미디어 정원은 고인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실감형 미디어아트의 기술을 접목한 영상으로 황홀한 볼거리와 함께 편안한 심터를 제공한다.

가로 25m, 세로 5.4m의 대형 스크린은 320×160mm의 LED모듈 2000개 이상을 조합한 초고화

질 LED 커브드 화면으로 색채의 선명도와 몰입감으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주요 콘텐츠는 ▲고인돌과 피어나는 형형색색의 꽃, 동물, 고창의 자연소리로 평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고인돌 정원’ ▲2022년 고창고인돌 유적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2023년 고창고인돌유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메인쇼인 ‘CIRCLE OF LIFE’로 구성됐다.

개관식에 참가한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관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축적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시 ‘고독사 예방’ 복지부 장관상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우수사례 선정

남원시의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이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군구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사업 사례를 심사했고 총 127개 지자체의 사례 중 9개 지자체의 사례가 입상했다.

시는 고독사 위험 발굴 및 위험 정도 판단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특별시에서 이어 우수상을 수상했고 수도권 등 대도시 외 지자체로서는 유일한 수상이다.

‘읍면동장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은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중점 시책으로 시가 주민들

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장발전의 초석으로 강조하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23개 읍면동장은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올해 1만세대를 넘게 방문했고 이를 통해 각 세대의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취약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극 기여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이 더욱 많을 수 있다”며 “발로 뛰는 소통행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제적·집중적 대응으로 시민 중심의 대민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한사람의 보험비의 두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